

메이 영 박사, 성경 애가 소개

세션 1

저는 메이 영 박사입니다. 메이 영 박사님께서 성경 애가 소개 1차 강의를 진행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메이 영입니다. 테일러 대학교에서 성경학 부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구약 성경과 역사적 기독교 신앙에 관한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 이 주제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몇 가지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잠시 묵상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고통과 고난을 어떻게 감당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부서진 세상에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뉴스에서 끊임없이 고통과 비극,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우리는 고통, 정의, 우울, 의심을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주제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이 주제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여러분 이 이 주제에 대해 생각해 보시는 동안, 과거에 사람들이 이 질문에 답했거나 생각해 본 방법들을 몇 가지 제시해 보고 싶습니다. 어쨌면 여러분에게도 익숙할지도 모르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고통이나 불의, 혹은 일들에 대해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은 무시하고 그것들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너무 힘들 수도 있죠.

그러니까, 더 쉽게 할 수 있죠. 또 다른 방법은 친구와 공유하고, 이야기하고, 처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오히려 방해하거나 바쁘게 지내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현실을 굳이 마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바쁘게 지내다 보면, 실제로 앉아서 생각할 시간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시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인데, 사실 모든 게 잘 돌아가는 척하는 거죠 . 아니면 아예 마비시키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기 파괴적인 습관을 통해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마도 매우 건강에 해로운 방법일 겁니다.

아시다시피, 때때로 사람들은 술이나 마약, 또는 그 고통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다른 방법에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이러한 행동이나, 어쩌면 이러한 무행동이 일시적인 안도감을 가져다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나은 방법이 있어야 하고, 우리가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더 나은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고통으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고, 시련을 겪으며, 우리 주변에서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일부는 성찰입니다. 그래서 저는 『골짜기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걷기』라는 책을 쓰기로 했습니다. 이 책은 인터버시티 아카데미 프레스를 통해 출간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성찰을 위해서였습니다. 교회에서 자랄 때 이 주제에 대해 많이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애가라는 주제에 대해 생각할 때, 다행히도 애가라는 주제가 전면에 부각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일들, 즉 팬데믹과 전쟁,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강연과 공과에서 성경적 애가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애가가 무엇인지, 그리고 애가라는 주제에 대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적 애통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 것일까요? 우선, 저는 성경적 애통의 개념과 실천이 단순히 고통의 현실을 표현하는 일반적인 이해를 넘어선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애통의 일반적인 개념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단순히 고통의 현실을 표현하는 것을 떠올립니다. 우리는 그저 슬퍼하거나, 고통에 맞서거나, 혹은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성경적 애통은 믿음의 행위라는 점에서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고통, 불의, 분노를 솔직하게 하나님께 호소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투쟁 속으로 초대합니다. 다시 말해, 실제로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분을 우리의 투쟁 속으로 초대하며, 우리가 회복탄력성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애도를 통해 우리는 실제로 더 큰 회복력과 마음의 치유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고통과 괴로움을 표현하거나 슬픔을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의미에서 더 큰 희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줄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애통의 예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의심이나 불의, 고통이나

어려움에 직면할 때를 위한 애통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애통 기도 중 일부는 특히 시편에 있습니다.

사실, 시편에서 시편의 3분의 1이 애가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욥기에도 애가가 나오는데, 욥이 자신의 개인적인 상황에서 겪은 일을 애통해하며 쓴 시입니다.

선지자들 도 사실 많은 애가를 썼습니다. 주변의 불의, 죄, 백성,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를 대적하는 나라들을 애통해하는 내용입니다. 선지자들과 애가서에도 많은 애가가 나옵니다.

애가서는 실제로 기원전 586년 바빌로니아인들에 의해 예루살렘이 파괴된 시기에 기록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재앙 의 결과로 , 애가서에는 그 당시의 상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르짖으신 것조차 애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그는 시편 22편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 시편은 애가의 시편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동안 그 시편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되는 기도와 애가를 생각해 볼 때, 이 구절들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애가에 대해 생각할 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에서 애가는 실제로 하나의 장르라는 것 입니다 . 시편에서도 애가는 하나의 장르입니다. 애가 는, 아시다시피, 장르의 중요성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장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본문의 장르를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리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저는 애가라는 주제를 생각할 때 성경 본문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살펴보고자 하기 때문에, 이 논의의 토대를 이 부분에서 찾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장르란 무엇일까요? 장르는 기본적인 정의일 뿐입니다. 특정 스타일, 형식 , 또는 내용을 특징으로 하는 예술적, 음악적, 또는 문학적 작품의 범주입니다. 예를 들어 전기나 매뉴얼, 설명서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특정 장르이고, 동화 같은 장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옛적에 제가 그 단어를 말할 때, 우리가 어떤 장르를 접하게 될지 실제로 알 수 있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무엇을 읽고,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것을 올바르게 해석 하고 그런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편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시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시편을 어떻게 올바르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바로 여기 허먼 권켈이 있습니다.

그는 양식 비평 학자였습니다. 1926년에 시편을 분석했죠. 그가 한 일은 시편들을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시편의 형식, 구조, 어휘, 주제 등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는, 서로 일관성을 유지하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관찰을 통해 시편 자체에도 유사한 표현 형식과 구조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분석은 시편을 장르별로 분류했습니다. 결국 그의 연구는 네 가지 주요 장르를 발견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의 연구는 훨씬 더 활발해졌고, 실제로 그 장르 내에서도 많은 하위 범주를 찾아냈습니다. 그가 정한 네 가지 범주는 찬양이나 찬송가, 감사였고, 그다음에는 개인적인 애가뿐 아니라 공동체나 단체의 애가도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애가를 살펴보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개인적인 탄식뿐 아니라 공동체나 기업의 탄식도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장르와 그것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장르에 대해 생각할 때 어떤 점이 눈에 띄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군켈은 이 작품들이 비슷한 삶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지, 특정 시간, 장소, 또는 어떤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생겨났는지, 공통된 생각, 감정, 또는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는지, 이러한 특정 장르에서 나타나는 유사한 스타일과 구조, 심지어 문학적 특징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장르를 결정할 때, 항상 단정적으로 정의할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이런 식으로 여러 카테고리에 속하는 무언가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를 보러 갈 수도 있죠.

에 적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양한 장르에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정 장르에서 발견되는 모든 요소를 다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들을 염두에 두고, 여기서 애도 기도에 대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찰된 점들은 무엇이이었을까요? 그들이 특정한 스타일이나 특징, 소통 방식, 또는 여기서 표현되는 감정의 종류를 공유했을까요? 우리는 시편에서 그것들을 발견할 수 있고, 애가서에도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각 애가는 서로 다르지만, 유사한 문학적 패턴, 형식, 그리고 구조를 공유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점이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살펴볼 때, 사람들이 고통을 겪을 때 단순히 감정의 원초적인 표현만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구조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 자신을 위한 애도에 대해 생각해 볼 때, 몇 가지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애도 기도와 애도라는 장르에서, 그리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삶을 보고 그분이 기도의 사람임을 알아차리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말한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신 방식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고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말하세요"와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주기도문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아시다시피, 아마 여러분도 여러 설교나 가르침 에서 사람들이 주기도문의 다양한 요소들을 살펴보는 것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는 구절 에서, 여기서 그 구절 자체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다"입니다.

그분은 멀리 계신 신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지상의 우리 아버지와는 다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며 그분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는 방식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매우 유익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암기해서 함께 기도 하고, 함께 낭송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그 기도문을 실제로 개인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요소들을 살펴보고, 매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인화하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애통의 요소와 애통 기도에 대해 생각할 때 이렇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기도에서 흔히 발견되는 요소들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겪는 다양한 고통과 어려움에 맞춰 어떻게 개인화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실제로 이러한 예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을 헤쳐나갈 것임을 알고 계십니다. 신자로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그리고 그러한 의미에서 그것을 이해하며, 이 과정에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르에 대해 생각해 보면, 두 가지 유형, 즉 두 가지 주요 유형의 애도 가 있는데, 제가 이미 앞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개인적인 애도와 공동체 또는 단체적인 애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애도에는 어떤 요소들이 있으며,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요? 개인적인 애도의 경우, 많은 경우 슬픔 이나 비통함을 표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시편 기자가 직면한 여러 가지 상황, 즉 슬픔이든 근심이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보여주셔야 한다는 필요성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서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들은 고통과 질병, 고난이라는 주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겪는 어떤 일들은 사실상 변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삶을 괴롭히는 고통, 고난, 질병은 시편 기자와 성경 속 인물들의 삶도 괴롭힙니다. 시편에는 약 39편의 개별적인 애가가 담겨 있습니다.

자, 여기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목처럼 개별적인 애가는 종종 개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1인칭 대명사를 많이 사용하는 거죠.

시편에서 자주 사용되는 "나"와 "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들의 대부분은 일반적인 표현으로 표현됩니다. 이 단어들이 특정 상황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몇 가지 구체적인 주제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때로는 시편을 있는 그대로 기도하고 싶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오랜 세월 많은 교부들이 그렇게 해왔죠. 하지만 좀 더 일반적인 특정 상황을 인식하고, 여러분 자신에게 맞게 기도하는 방식으로 시편을 개인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시편 기자와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신체적, 영적, 그리고 감정적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통적인 요소들에 대해 생각해 보면, 대략 다섯 가지가 확인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 다섯 가지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 싶습니다.

사실, 제 책 후반부 5장부터 10장까지는 다양한 유형의 애도를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그 요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는 애도와 외로움, 애도와 의심, 애도와 분노가 있습니다. 따라서 애도는 단순히 일차원적인 슬픔의 감정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감정들이 존재하고 그 안에 담겨 있지만, 우리가 겪는 감정은 매우 다양하고, 애통은 우리가 그런 감정을 처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다음 강의에서 시편의 다양한 방식 중 하나와 시편이 어떻게 외로움을 그런 방식으로 처리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 요소는 바로 호소, 즉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처럼, 여기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하나님께로 향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감정을 대거나 우주, 심지어 우리 자신에게 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신앙의 행위이며, 이런 방식으로 하느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일종의 호소이자 기도입니다.

많은 경우, 아주 간단합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 향하여 야훼나 엘로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자, 나의 반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에서 이 부분을 볼 수 있고, 기도 에서도 어떻게 드러나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아주 간단합니다. 하느님께 향하는 것, 하느님을 부르는 것, 이런 종류의 간구나 호소입니다. 그래야 이것이 기도, 즉 하느님을 부르는 일종의 부르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두 번째 요소가 있는데, 아마도 애가의 핵심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탄식이나 간구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많은 경우 죄의 고백이나 심지어 무죄를 주장하는 것과 같은 요소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편 기자는 일종의 자기 성찰을 하고, 개인적인 죄를 인식하거나, 심지어 무죄를 인식하고, 특정 상황에서 깨끗한 손을 갖는 것과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도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어떤 상황 으로 고민하고 있는지 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요소에서 다루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소인 동기가 있습니다 .

그래서 이 요소는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거나 행동으로 나아가시는 이유를 제시합니다 . 시편 기자가 기도할 때, 선지자가 기도할 때, 또는 성경 속 인물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동기는 무엇일까요? 이 요소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과 그분의 성품에 대해 진실이라고 알고 있는 사실과 기도의 간구를 연결해 줍니다 .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왜 행동하셔야 하는지 아십니까? 시편 기자가, 혹은 여기서 하나님께 대한 동기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 번째 요소는 신뢰의 고백, 즉 들어주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다섯 가지 요소는 여기 애가 시편, 특히 많은 개별 애가의 특징이며, 어떤 사람들은 이를 공동 애가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애가가 다섯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요소 중 하나가 누락될 수 있고, 항상 같은 순서로 배열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도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문학에서도, 심지어 장르가 다르더라도, 특정한 요소들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항상 이렇게 딱 들어맞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신뢰의 고백이나 들려질 것이라는 확신을 생각할 때, 모든 애도가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88편, 아마도 시편 중 가장 어두운 시로 여겨지는 시편에도 그런 요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아시다시피, 그 점이 우리에게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애통 속에서도 항상 우리가 그 사건을 바라보거나 처리하는 방식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때때로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면서 여전히 그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존재할 때, 이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애통에서 희망으로의 전환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편 기자에 대한 불신에서 신뢰로, 혹은 시편 기자 안에서의 신뢰로 전환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문법이나 시편 기자의 어휘를 통해 나타납니다. 히브리어 문법에서는 이를 '바브(vav)'라는 역설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사실 여기서는 '~와(과)의 접속사'로 번역되었지만, 시편에서처럼 '~이지만' 또는 '지금'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시들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애가에서 다른 종류의 말로의 전환을 나타냅니다. 즉, 신뢰의 고백이나 들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저는 당신을 믿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일종의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특정 요소에 대해 흥미로운 점은 학자들이 이 부분을 연구하면서, 어떻게, 어떻게 그런 전환이 일어나는지 살펴보았다는 겁니다. 가끔은 책을 읽다가 갑자기, 마치 아침처럼 어두운 상황들을 생각하다가, 갑자기 이 시편 기자나 시편 기자가 이런 종류의 신뢰 고백을 터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학자들이 신뢰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해 왔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신탁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성품이 항상 똑같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이었을까요? 제 생각에 정말 위안이 됩니다. 삶이 그렇게 흘러가고, 때로는 우리 자신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삶이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방식은 과거에 역사하셨던

방식이나, 생각나게 하시는 성경 구절 , 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다양한 방식일 수 있습니다. 격려는 다양한 형태로 주어집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격려하고, 기도가 들린다는 확신이나 신뢰, 혹은 변화를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그것이 실제로 현실을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식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것, 즉 찬양의 서원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들으심을 받았거나 구원을 경험했다는 확신을 느꼈기에, 이제 서원이나 찬양의 약속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그를 찬양할 것이다"와 같은 표현이나, 그런 표현을 반영하는 어휘나 표현들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기 있는 모든 애가에 모든 요소가 다 들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존재하는 다섯 가지 공통적인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도와 애도 기도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주제를 생각하고 성찰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감정적 고통을 치유 하려면 실제로 그 고통을 의식 속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 12단계 프로그램에서 나온 이 명언이 마음에 듭니다. 고통 을 느끼는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

하잖아요 . 때로는 느끼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차라리 이런 식으로 억누르고 싶지만, 여기서는 치유를 위해 감정을 의식 속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애도의 다른 목적 에 대해 이야기할 때 좀 더 이야기하겠지만 , 감정을 마비시키거나 억누르거나 부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아시다시피, 우리는 종종 우리 물건을 쭈서 넣는 데 꽤 능숙하죠.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다루지 않는 게 낫고, 이런 의미에서도 차라리 쭈서 넣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 일부는 감정적 고통을 부정하는 데 너무 능숙해져서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 그 일들을 밀어내고, 무의식적으로 고통을 억누르는 법을 배워서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게 된 겁니다 .

그러니 여기서는 감정에 휩쓸릴 시간이 없습니다. 삶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어떤 식으로든 대처 해야 합니다 .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삶과 마음에 에너지 불균형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유일한 자각은 바로 이 불안한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왜 스스로를 느끼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딘가 불안한 감정을 느끼고, 제한된 내면의 자원으로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고쳐줄 무언가를 우리 자신 밖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것들을 이런 식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몇 가지 징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고통에 직면하고 그런 방식으로 처리하기 전까지는 진정한 치유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

그래서 저는 여기서, 종종 우리는 고통을 억누르고 얼굴에 가면을 쓰는 것 같아요. 내면적으로 많은 문제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세상에 맞설 때는 가면을 쓰고, 고통을 무시하면 실제로 고통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죠 . 그래서 고통이 없는 척하지 않으면, 여기서도 고통은 사라질 거예요.

우리는 건강에 대해서도 종종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건강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들은 우리가 해결 해야 할 문제라는 걸 알면서도 ,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는 무시해 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는 감정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감정적 고통이든 육체적 고통이든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감정이 없는 척하는 것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과학 , 심리과학, 성격과학 분야에서 실제로 발표된 연구 결과 에 따르면, 감정을 억누르면 오히려 사람들이 더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제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영화에서 다소 충격적인 장면을 보면서 감정을 억누르도록 했습니다 . 감정을 표현할 수 없는 그룹은 억누르도록 했고, 다른 그룹은 감정을 드러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에서 감정을 드러낼 수 있었던 피험자들은 실제로 그 후 덜 공격적이었습니다 . 감정을 다스릴 수 없었던 피험자들은 특정 상황 에서 필요 이상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임상 심리학자 빅토리아 테라트는 이 실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일상생활의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죠. 예를 들어, 동생에게 화가 났을 때, 화를 참지 못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감정 폭발을 부추길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몇 주 후에 차를 운전하다가 누군가 끼어들면, 분노가 폭발 해서 사고를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그 폭발과 상황에 대한 과잉 반응은 우리 몸이 억눌린 감정을 발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특정 상황에 대해 과잉 반응해 본 적이 있나요? 어쩌면 아이들이 어리고, 좀 엉뚱한 행동을 하는데, 갑자기 직장 이나 다른 상황에서 억눌린 감정 이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그러면 아이들이 특정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 과잉 반응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억눌렸던 감정들이 표출되고, 이제 그 감정을 꺼내 특정 상황에 과잉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억누르려고 할 때 감정이 다른 방식과 형태로 표출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해로울 수 있고,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앤 라모트는 그의 베스트셀러 『트래블링 머시』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 저는 그 오랜 세월 동안 슬픔은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최대한 은밀하게 극복해야 한다는 거대한 궁전의 거짓말에 속아 왔습니다. 하지만 그 후 제가 깨달은 것은 평생 슬픔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황량하고 고립된 곳에 가두어 두고, 오직 슬픔만이 슬픔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슬픔의 예민함은 줄어들겠지만, 슬픔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시간만으로는 슬픔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면 치유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러한 것들을 표현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를 그 감각에 갇혀 있게 내버려 두지 않고요 . 그래서, 우리는 로봇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 해야 합니다 .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감정을 가진 인간입니다 . 생각해 보면 감정적, 영적, 이성적 요소를 가지고 있죠 .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정을 억누르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감정을 지닌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처럼, 이런 식으로 금욕적인 삶을 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또 묻고 싶은 질문은, 여러분은 고통을 피하거나 억누르려고 하시나요? 왜, 혹은 왜 억누르지 않으시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고통을 느끼도록 스스로를 내버려 두시나요? 이 부분이 여기서 생각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고통을 자주 억누르시나요, 아니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실제로 다루도록 스스로를 내버려 두고 계신가요 ? 치유 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고통에 솔직해야 합니다 .

우리는 이성적, 육체적, 감정적 존재일 뿐만 아니라, 삶 의 모든 측면을 가진 온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실제로 다른 방식으로 고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 사실 을 확인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감정적 고통을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실제로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으로 감정을 억제하는 사람들은 감정 표현이 풍부한 사람들보다 질병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 억제는 생리적 반응을 높여 질병에 취약하게 만든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 점을 보여주는 여러 연구들이 있습니다.

합니다 . 따라서 감정을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 건강 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2013년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과 로체스터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억누르는 사람들은 모든 원인으로 인한 조기 사망 위험이 30% 이상 증가하고, 암 진단 위험은 7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 말은,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람들이 감정적인 고통을 겪지 않더라도, 그것이 신체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애도가 신앙의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애도가 왜 중요한지, 왜 중요한지 아는 것도 바로 신앙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마음을 표현할 때, 우리는 탄식하며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지, 그분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통을 표현하거나 고통에 맞서 싸울 때, 많은 경우 사람들은 자신을 숨기거나 고립시키고 싶어 하고, 사람들 뿐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게서도 멀어지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애통해할 때, 우리는 사람들과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고 싶어 하는 마음을 마음속에서 억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힘든 시기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진짜 생각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중요한 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애통함을 표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이 친밀한 관계, 언약적인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보시도록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셜 미디어에 올리는 글들은 대부분 우리가 그 사람들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진짜 감정을 드러내지 않을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진짜 감정을 표현 해야 합니다 .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과 짐, 슬픔을 그분께 가져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께 마음의 짐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와 같은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를 이렇게 초대 하십니다 .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억누르면 관계 내 소통이 상당히 차단된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제임스 그로스가 진행한 이 연구는 감정을 억누르면 관계 내 소통이 차단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현상을, 심지어 여러분 자신의 관계에서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배우자나 친구들과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때, 실제로는 많은 경우 그 사람들과도 단절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사람들, 특히 개인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감정을 억누를 때, 우리는 감정을 닫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소통조차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께 솔직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자신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힘든 시기를 겪고 자신에게로 돌아가고 싶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조차 표현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때때로 하나님께 화가 나서 기도를 아예 멈추거나 심지어 교회에 가는 것조차 멈추는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감정을 잠재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애통은 그런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소통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의 고통 속에서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알고 보고 계십니다. 왜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그분을 외면할까요? 그래서 여기서, 그것이 여기서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여기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께 솔직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우리 가 여기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그저 기계적으로, 기계적으로, 혹은 매우 일반적인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솔직해지는 것은 시편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다니엘 헤이즈는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표현은 종종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것처럼 들립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감정을 억누르도록 서로에게 압력을 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모델은 스타트렉의 스팍처럼 냉정하고 냉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팍처럼 감정을 억누르고 기도하는 대신, 이런 식으로 정직해지는 법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서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성찰은, 여러분의 기도 가 어떤지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정직한가요? 기도할 때 그저 말로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적인 내용을 표현하는 건가요? 여러분의 기도는 주님과 얼마나 친밀한가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고통과 일들에 대해 얼마나 솔직하게 그분과 교감하고 있나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만한 주제입니다.

이제 애통에 대한 몇 가지 오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애통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적 애통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어떤 애통이, 무엇이 성경적일까요? 성경적 애통에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선 , 애통은 자기 연민이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런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클라우스 베스터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가로 끝나는 애가시는 단 한 편도 없습니다. 애가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애가의 관심사는 자신의 고통이나 자기 연민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고통 그 자체를 없애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일종의 표현, 즉 하나님께 상황을 호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변화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애가 시편은 역동적인 여정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자기 연민의 정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단순히 슬픔에 잠기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애도라고 생각하지만, 애도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

사실, 여기서 애가 시편은 예배자에게 좌절감을 터뜨리고 감정을 쏟아내도록 권유하지만, 결국에는 해결책을 찾아야 할 때가 옵니다. 그래서 시편은 변화를 추구하며, 궁극적으로는 의심이 아닌 약속에 기반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약속 ,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약속 말입니다.

그들은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행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둘째, 여기서 애통은 실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교회 안의 다른 사람들이나 심지어 우리 자신에게서 판단받을 까 봐 솔직하게 말하기를 두려워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부족한 걸까? 내 머릿속에서 이런 질문이나 의심에 직면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게 실패일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런 생각은 교회에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제가 교회에서 자랄 때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에 대해서만 자주 들었던 것 같습니다 .

사람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겪다가 극복했는지에 대한 간증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은 이야기도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왜 극복하지 못할까,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 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걸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승리주의적 분위기가 더 강해졌습니다.

제 책에도 언급했듯이, 교회에서 진정성이 강조될 때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판단과 굴욕감 때문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어려움을 토로했을 때 적절한 답변을 받았고, 적절한 시기에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는 기대를 받았다고 털어놓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의심이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교회는 가장 피하고 싶은 곳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나 다른 사람들이 간증했던 것과 같은 승리의 결과를 가져오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믿음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느끼고 낙담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나눴의 패턴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약해 보일까봐 자신의 어려움을 숨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의 판단은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라고 부르지 않으셨던 인위적인 힘을 드러내도록 이끍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승리의 메시지를 서둘러 전하려고 하다가, 무의식적으로 상실과 슬픔, 비통함을 경험하는 것이 실패라는 메시지를 전달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 지점으로 성급히 넘어가지 않고, 고통받는 것이 괜찮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의심이나 고통 같은 것들을 겪는 것은 괜찮습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루고 처리해야 할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불평하고 탄식하는 것은 괜찮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을 자주 들었습니다. 불평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닐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흥미로운 점은 애가, 시편의 거의 3분의 1이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그렇다면 불평에 대해 생각하고 기도할 때 이 점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잘못된 게 아닐까요? 사실, 애가에서는 하나님의 진노, 무관심, 거부, 망각, 그리고 얼굴을 가리는 것에 대해 불평합니다.

여기 이런 예가 있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며 당신의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시나이까? 시편 기자는 여기서 솔직하고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탄식이 하나님께 이러한 솔직한 질문들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님, 다윗에게 맹세하신 주의 신실하심의 그 크신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런 질문들을,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솔직한 질문들을 제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평과 탄식, 그리고 원망과 불평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차이가 있고, 우리는 여기서 탄식과 단순한 불평과 불평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15장과 17장, 그리고 민수기에서 광야 세대가 지도자들과 서로에게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정죄받았던 곳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기본적으로 믿음의 행위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과 지도자들에 대한 그들의 진정한 생각을 이런 식으로 굳건히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의 불평은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에게나 서로에게 불평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중요한 구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정죄받는 반면, 주님께 불평하는 것은 권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평하는 것은 단지 그들이 신에 대해 진실이라고 믿는 바를 표현하는 방식일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대화가 아니었고, 대화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불평과 불신을 서로에게 토로하는 방식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트렘퍼 롱맨 박사가 여기서 말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반역자들이 서로에게 하나님에 대해 불평했던 반면, 시편 기자들과 욥은 하나님께 직접 탄식을 토로했다는 점을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후자는 그들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거나 하나님께서 결국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자기 연민이나 좌절감에 사로잡힌 자기 중심적인 표현과, 변화를 가져올 능력을 가진 분께 드리는 기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이 구절은 하박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설령 듣기에 좋지 않더라도 자신의 진심을 표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더 큰 친밀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 탄식, 불평, 그리고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같은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친절하신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장 가까운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볼 때, 가까운 친구나 배우자 사이에 긴장감이 있다면, 그들이 그 불만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대화형으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일종의 친밀함이죠. 그래서 시편과 애가의 기도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종류의 친밀함을 증진하기 위해 그분께 나아가기를 바라십니다. 모든 것을 닫아버리는 대신 말입니다.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면, 문제가 있는데도 가까운 관계에서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때로는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는 그런 친밀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애도가 무엇이 아닌지에 대해 이야기한 후, 공동체적 애도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노래는, 아시다시피, 공동체가 함께 고통을 표현할 때 더 많은 공동체의 감정을 다루는 또 다른 장르입니다. 그렇다면 공동 애가란 무엇이고,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왜 중요한 걸까요? 공동 애가에 대해 생각해 보면, 시편에서 발견되는 많은 부분은 공동체가 함께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쓰였다는 것입니다. 국가적 위기, 자연재해, 군사적 패배 등 국가나 민족 집단으로서 집단적으로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쓰였습니다.

때때로 이 애가들은 이곳의 특별한 애가 의식에서 낭송되기도 했습니다. 마치 집단적으로 낭송하는 것처럼요. 현재 존재하는 공동 애가의 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를 묘사하고 분류하는지에 따라 약 12개에서 23개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 애가를 특징짓는 것들, 즉 공동체 애가들은 분명히 여기서는 1인칭 복수형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개인적인 "나"나 "저"라는 표현 대신, "우리"나 "우리" 또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또한 2인칭 단수 형태로 사용되어 하나님께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상기시켜 줍니다. 따라서 이 공동체의 애가에서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께 직접 말씀드리고, 그분의 백성과의 관계, 즉 언약 관계를 상기시켜 드립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거부하시고 갑자기 나타나셔서 분노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직접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 애가의 핵심적인 특징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역사를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가져오신 방식,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역사, 그리고 그분께서 백성을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해 자주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많은 것들이 앞서 살펴본 동기 부여 요소로 작용합니다.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고 일깨우시도록, 그분의 백성에게도 구원을 가져다주시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애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다섯 가지 요소를 공유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는 여기와 여기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오, 하나님" 또는 "누구에게 이 기도를 드리는가?"라는 지시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공동체로서 공동체적인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향한 비난의 말이나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불평이나 비난의 말, 혹은 하나님께 드리는 질문들을 더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를 영원히 버리셨습니까?" 그리고 불행이나 공동체의 경험에 대한 탄식이 이어 집니다.

때로는 정치적인 성격을 띠기도 하는데, 지역 사회가 이런 식으로 겪는 경험과 같은 맥락이죠. 그리고 야훼께 이 불행을 해결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하느님께 무언가를 해 달라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리고 하느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이유나 동기를 간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요소들이 모든 공동 애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학자들이 이러한 관점에서 관찰한 몇 가지 사항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공동 애도나 집단 애도는 왜 중요할까요? 우선, 우리 모두 고통을 보편적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통 과 슬픔, 그리고 슬픔은 때때로 개인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겪는 건 우리 개인뿐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공동체 전체가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시 다시피 , 죄는 우리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지역 사회 전체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한 사람이나 문화, 인종을 초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감정을 경험하고, 때로는 상황이 우리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에서 우리가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고린도전서에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서는 것은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함께 서서 고난을 겪으라고 요구합니다.

스웨덴 속담 중에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어요. 기쁨을 나누면 두 배의 기쁨이 되고 , 슬픔을 나누면 절반의 슬픔이 된다는 거죠. 이 속담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생각해보면, 기쁨을 나눌 때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지는 건, 실제로 기쁨이 더 커지기 때문이에요.

기쁨은 두 배가 됩니다. 그리고 슬픔을 서로 나누면 짐이 가벼워지기도 합니다. 우리 곁에 도 그 짐을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의 애痛的 중요성을 인식하며,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이렇게 함께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는 고통받는 이들과 어떻게 공감해야 할지 모릅니다. 교회로서 우리 모두 더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 나서야 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마도 많은 경우, 우리는 자신의 삶에만 신경 쓰느라 주변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제대로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지는 않지만, 어쩌면 너무 자기중심적이거나 자신에만 집중하다 보니 주변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제대로 인식 하지 못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사람들이 상처받았을 때 왜 제일 가기 싫어하는 곳이 교회일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갈 기분이 안 들어요. 오늘은 교회에 갈 기분 이예요 . " 라고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교회에 가려면 일어나 있어야 할까요 ? 아니면, 상처받았을 때, 힘든 일이 많을 때, 그럴 때 교회에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고통받는 사람들 곁에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경청하고 불확실성 속에 앉아 진실과 사랑을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역의 현존을 통해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비록 말로 표현할 수 없더라도,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동료 형제자매들의 고통을 이런 방식으로 목격하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성경의 애가에 대한 간략한 소개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들도 다루겠습니다. 제 책에도 그 주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메이 영 박사님이 성경적 애가 소개 1차 강의를 진행하시는 모습입니다.